

서울시, 강북권 전성시대 프로젝트 순항... '직·주·락' 집중

(직장·주거·여가)

동북권 8개구, 서북권 3개구 추진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적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선
K-팝 중심 복합문화시설 착공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3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강북권 대개조사업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주거 환경 개선 활성화, 대규모 문화시설 착공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서울 강북권을 '일자리 중심의 신(新)경제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동북권 8개구(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와 서북권 3개구(마포·서대문·은평)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미래형 일자리', '쾌적한 주거 환경', '감성 문

화공간' 등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초점을 뒀다.

우선 시는 강북권역의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적용했다. 기존 사전협상 제도를 손질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며, 상한 용적률 인센

티브가 활성화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4만8000㎡ 규모의 공공 유향 부지로, 오는 2033년 창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외에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 정책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도 개선,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 인정 등 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강북구 미아

동 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며 최초로 고도지구 규제 완화 사례를 만들었다"면서 "또 올 11월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최초로 적용받았다"고 말했다.

강북권 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K-팝 중심 복합문화시설인 서울아레나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7월 착공식을 개최했고, 올해 11월 서북권 최초의 시립도서관인 김병주도서관의 공사를 시작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앞으로도 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강북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강남·북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BK21 혁신인재양성사업, 기관 71곳 재선정

교육부-연구재단, 중간평가 예비결과 201개 중 하위 33.3%인 67곳 탈락
4개 산업·기술 분야, 새로 추가 진행

4단계 두뇌한국(BK)21 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수행하는 201개 교육연구단 중간 평가 결과, 하위 33.3%에 해당하는 67곳이 탈락하고 71곳이 재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2일 '4단계 BK21 혁신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 예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7년간 진행되는 4단계 BK21 혁신인재양성사업은 전 분야에 걸친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연구단(팀) 운영 및 대학원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중간평가는 2020년 선정돼 사업 수행 중인 201개 교육연구단을 대상으로 우수 성과 창출 독려 및 경쟁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우수한 신규 교육연구단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됐다.

1단계 성과평가는 신산업 17개, 산

업·사회문제해결 3개 등 20개 분야에서 전국·지역 단위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전체 201개 중 하위 33.3%인 67개 교육연구단이 탈락했다. 통과한 134개 팀 중 상위 20.9%인 42개 교육연구단에는 연간 혁신인재양성사업사업비의 16.6% 수준인 총 57억여원의 성과금이 지급됐다.

2단계 재선정평가는 최근 사회적으로 인력양성 필요성이 급증한 '사이버 보안·양자·우주·이차전지'의 4개 산업·기술 분야 선정을 새로 추가해 진행됐다. 총 215개 교육연구단이 지원한 결과 총 71개 교육연구단이 예비 선정됐다.

예비 선정된 71개 교육연구단 중 ▲ 건국대 기초-응용 학문융합 한계돌파형 첨단소재 인재양성 연구단 ▲ 경희대 글로벌 첨단 반도체 혁신교육연구단 ▲ 서울대 지방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지역 레질리언스 융합인재 교육연구단 ▲ 인하대 저궤도 우주경제 기술 선도 인재양성 사업단 등 41곳이 신규 선정됐다. 나머지 30개 연구단은 앞서 진행된 성과 평가에서 탈락했다가 재정비를 거

쳐 재선정됐다.

성과평가를 통과한 134개 교육연구단과 재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예정인 71개 교육연구단은 내년 3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대학은 이를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비, 연구활동 지원비, 국제화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재선정평가의 최종 결과는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 및 증빙자료 점검을 거쳐 2025년 2월 확정·발표된다. 다만, 하위 내용이 있을 경우 탈락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BK21 사업은 우리나라 대표 대학원 지원사업으로, 젊은 연구자의 성장과 연구의 양적·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라며 "엄정한 평가를 통과해 새롭게 선정된 교육연구단이 국가 연구경쟁력을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ASML 자리 잡는다

ASML 사무소 설치 등 협약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의 한국법인 ASML코리아가 용인에 사무소를 설치해 들어온다고 밝혔다.

ASML코리아는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서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최한중 ASML코리아 대표와 ASML 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과 인력양성 및 용인지역 인력 고용 등을 내용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용인과 지역 내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장비의 기술지원과 유지·보수 기반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용인은 ASML코리아가



이상일 특례시장(왼쪽)과 최한중 ASML KOREA 대표이사(오른쪽)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을 들어보고 있다. /용인시

반도체 팹(Fab) 인근에서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ASML코리아는 관내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한 사무실에 용인지역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했다. /용인(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역 일대, 글로벌 미래 플랫폼으로 재탄생

서울시, 서울역 공간 대개조 구상 발표

서울역 일대가 지식·문화 교류 허브이자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글로벌 미래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중구 청파로 432에서 열린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착공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역 공간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은 저이용 철도 부지(면적 약 3만㎡)에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전사·국제회의장을 갖춘 국제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부지엔 최고 39층 규모로 도심권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

션·전시회) 산업을 선도할 시설이 건립된다. 공공기여로 확보한 3384억원은 서울역 일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입된다.

이날 시가 내놓은 서울역 일대 개발 비전은 '글로벌 미래 플랫폼'이다. 먼저 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환승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로 확보되는 대규모 지하 공간을 활용해 복합환승센터를 설치, 효율적이고 편리한 환승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기존 철로 구간에 도심과 한강을 잇는 선형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선형공원을 비즈니스 공간과 랜드마크타워, 마이스, 호텔, 상업, 주거, 지하 교통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국가유산(사적)인 문화역284(구 서울역사)의 상징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울역 광장과 남산 등 인근 지역을 잇고, 역 앞 광장은 탁 트인 녹색 공간으로 가꿔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역 광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철도 지하화가 이뤄지는 2033년 이후부터 서울역 상부 개발을 추진, 2046년 무렵까지 미래 플랫폼 구상 실현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국가 중앙역이자 국제 관문으로서 서울역의 위상을 높이고 공간을 재편하는 도시 대개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거와 미래, 세계와 서울을 연결하는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날 '서울역 일대'가 다시 힘차게 뛰는 날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남도, 내년 국비 9조6082억 확정

전년비 2003억 늘려... 2.1% ↑

경상남도는 2025년도 국비가 지난해보다 2.1%, 2003억원이 증가한 9조 608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당초 정부예산안 확정 이후 국회상황실을 운영하며 국회단계 국비 추가 증액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쳤으나, 정부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2025년 경남도 국비 확보액은 기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9조 6082억원으로 확정됐다.

경남도 주요 국비사업은 정부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으며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은 없어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다.

주요 사업을 보면, ▲남부내륙철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양산도시철도 ▲진해신항 건설 등 주요 SOC사업과 ▲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 ▲위성계

발혁신센터 조성 등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돼 이번 의결로 확정됐다.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방산진입 액셀러레이팅 지원 등 원전, 방산 분야는 물론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 등 주요 사업들도 확정됐다.

또 ▲경상남도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 육성 사업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등 신규 사업 예산 확정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경남도는 최근 정치상황 등에 따라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앞으로 정부 추경이 있을 시 반영하거나 2026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